



## ‘순한 양’ 로페즈 필승투 되찾다

악동서 믿을맨 변신...KIA 'V11' 프로젝트 순항  
 차일목·김선빈·안치홍 만점활약 '승리 도우미'



로페즈의 'Again 2009' 프로젝트에 시동이 걸렸다. 5일 KIA 타이거즈 투수 로페즈는 대전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투수가 되며 선발진중 가장 먼저 승리 스타트를 끊었다. "2009년의 영광을 재연하겠다"던 자신의 얘기처럼 로페즈는 이날 8이닝 동안 5피안타 3사사구 4탈삼진 1실점의 위력적인 피칭을 선보였다. 여기에 공·수의 완벽한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9-1로 경기가 마무리 돼 로페즈는 손쉽게 승리를 낚았다. 화끈한 승리의 중심에는 '차포'와 '꼬꼬마 키스톤'이 있었다. 로페즈의 전담 포수로 활약해온 차일

목은 이날도 로페즈와 배터리를 이루며 환상의 호흡을 과시했다. 공격에서도 한 방을 날리며 로페즈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1-1로 맞선 4회 2사에서 차일목은 솔로포를 쏘아올리며 한화 선발 데플라를 공략했다. '차포'의 일격을 받는 데플라는 연속 안타로 2점을 더 내주며 4회를 끝으로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올 시즌 팀의 시범경기 첫 홈런포의 주인공 차일목은 결승 홈런까지 만들어내며 로페즈의 확실한 도우미로 자리 잡았다. 불안한 수비로 로페즈를 흔들리게 했던 '꼬꼬마 키스톤'도 만점활약으로 완벽한 피칭을 조력했다. 지난해 김선빈과 안치홍은 유독 로페즈의 등판 날 눈에 띄는 실책을 기록했다. 구위 저하에 경기마저 뜻대로 풀리지 않자 로페즈는 마운드 악동으로 돌변했



〈차일목〉

〈김선빈〉

〈안치홍〉

다. 경기도중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노출하면서 로페즈의 등판일이 되면 수비진이 더욱 경직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로페즈는 첫 등판에서 한결 느긋한 모습을 보여줬다. 수비진들도 깔끔한 수비로 힘을 더해줬다. 특히 개막 후 처음으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2루수 안치홍은 우려와 달리 날렵한 움직임을 보였다. 안치홍은 1-1로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되던 2회말 2사 1·2루에서 강동우의 잘맞은 타구를 라인 드라이브로 처리하며 한화의 추격을 막았다. 4회 말에는 2루 베이스 옆을 빠져나가는 김강의 안타성 타

구가 안치홍의 호수비에 땅볼로 둔갑했다. 5회말 실책을 하나 기록했지만 곧바로 유격수 김선빈과 더블 플레이를 합작하며 무 아웃을 만들어냈다. 불안한 송구로 로페즈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김선빈은 한층 안정된 수비와 함께 3개의 안타와 볼넷 2개로 100% 출루에 성공하는 폭발적인 공격력으로 이날의 히어로가 됐다. 다혈질의 로페즈가 공·수에서 날개를 달며 'Again 2009' 프로젝트의 순항이 시작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레알 마드리드의 이데바요르(가운데)가 6일 스페인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2011 UEFA 챔피언스리그 토트넘 홋스퍼와의 8강전에서 헤딩골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 레알·샬케04, 챔스 8강 1차전서 대승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명문구단 레알 마드리드가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를 완파하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6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2011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토트넘과의 홈 경기에서 전반 4분과 후반 10분에 터진 에마누엘 아데바요르의 헤딩골과 후반 중반

에 나온 앙헬 디마리아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릴레이 골을 묶어 4-0 대승을 거뒀다. 2003-2004년 시즌 이후 7년 만에 8강에 오른 레알 마드리드는 1차전 승리로 챔피언스리그의 전신인 유러피언컵을 포함해 통산 10회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반면 토트넘은 16강전에서 이탈리아 강호 AC밀란을 제압하며 끌어올린 분위기가 8강 전 첫 경기 패배로 다소 가라앉았다. 8강 2차전은 14일 토트넘의 홈 구장인 영국 런던

화이트하트레인저 열린다. 4점차 승리를 거둔 레알 마드리드는 2차전서 무승부는 물론 3점차로 저조 4강에 오를 수 있다. 한편, 샬케04(독일)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인터 밀란(이탈리아)을 적지에서 5-2로 대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맞붙은 양팀은 전반에 두 골씩 주고받으며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하지만 샬케는 후반 7분 '백전노장' 라울 곤살레스가 역전골을 터트리 승기를 가져왔다. 인터 밀란은 후반 12분 수비수 안드레 아 라노치아의 자책골에 이어 후반 29분 예두에 추가골을 내주며 3점차 패배를 당했다. /연합뉴스



### 한국계 기대주 최현 메이저리그 첫 홈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한국계 기대주인 최현(23·미국명 헵크 콩카·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사진)이 첫 홈런을 때렸다. 최현은 6일(이하 한국시간)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스버그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8번 타자 겸 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최현은 3-0으로 앞선 4회 선두타자로 나와 상대 선발투수 제프 니만의 2구째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월홈런을 뽑았다. 최현은 홈런을 때리고 나서 나머지 세 타석에서는 삼진을 한 차례 당하는 등 추가 안타를 뽑아내지는 못했다. 에인절스는 탬파베이를 5-3으로 이겼다. 최현은 데뷔 시즌이던 작년에 에인절스에서 백업포수와 대타로 13경기에 출전해 홈런 없이 타율 0.172(29타수 5안타)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인 메이저리거인 추신수(29·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이날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홈경기에서 3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에 그치는 등 개막전 때 세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하나 기록하고서 이날까지 3경기 연속 안타를 치지 못했다. /연합뉴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 광주 U대회와 결친 세계군인체육대회 변경

한나라당 이한성(문경·예천) 국회의원은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5일까지인 세계군인체육대회 일정을 변경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같은 해 광주시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일정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는 군인체육대회 한 달 뒤인 7월에 열릴 예정이어서 유니버시아드대회 관계자들은 국제심판 등 대회운영 요원 확보나 후원사 유치, 관중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 왔다. /연합뉴스

이런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 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빔 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 상견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WiFi Free Zone

부담없는 가격의 내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와인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525-2111(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http://www.geumsoojang.com)